

## 연설 5: Thomas Penland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 이번 TEDxYouth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TCIS 학생 여러분들과 교직원들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TEDxYouth 두번째 행사이고 앞으로 더 많은 행사들이 있을거라 믿습니다.

교육 저는 본래 작년은 물론 올해의 TEDxYouth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는 처음 보았을때 저의 흥미를 돋구어 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 주제가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올까? 왜 이 주제에 시선이 끌리는것일까? 제가 제출계획서를 처음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았을때 이 제가 이 주제와 개인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일생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인류는 제도화된 교육에 흠뻑 젖어있습니다. 학교는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하는 일들을 통해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학교는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단위인 가족과 심오한 방식으로 얽혀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진보적인 사회에 적절하고 생산적인 인간의 형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니다.

저는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때 심리학을 제 전공으로 선언했습니다. TEDxYouth 주제에 대한 저의 관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저는 대학교 1학년때 그 분야에 대해 가졌던 관심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사람이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떤면으로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 연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그때의 저를 만들고 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종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다른 이들이 출판한 한 학술연구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을 독특하게 하거나 다른종과 다르게 하는 것, 또는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합의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연구에 대한 분석은 인간의 인지능력이 다른 종과는 다른 것인지, 또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다른 말로는, 한 종으로서 우리 인간은 독보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일까? 또는 그저 가장 똑똑한 것 뿐인 것일까?

우리는 인간이다 오늘 주제에 제시된 제 아이디어에 대한 변호가 교육자로서 개인적인 경험이 기반이 되는지 더욱 깊이 고려해보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행동들을 관찰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사고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어가 된다면 어떨까에 대하여 관찰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상어의 행동들을 다른 동물들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어가 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는 절대 상어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일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내부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을 매일 밤낮으로 경험합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때 주로 그것을 경험하거나 기억하거나 문서화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우리는 잠에 반의식 상태의 사고 패턴에서 무언가를 얻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심오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 경험에 따르면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배웠던 방대한 양의 지식은 제가 의식하고 있는 시간동안의 경험에서 나온것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느 경험은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것입니다.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저의 경험에서, 저는 인간으로서 의식이 있을 때 받은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교, 그리고 "유사" 또는 "차이" 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방은 다른 방보다 어둡습니다. 하루종일 말하던 말하지 않던 우리는 훌륭한 비교와 원유를 통해 지각하고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저의 인간으로서의 경험은 개인적 주관 없이 객관적일때 비교와 관계에 의한 의식이 가장 좋고 유용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을 넘어선 무언가 하지만 앞서 묘사했던 지식이란 것은 모든 인간의 경험, 특히 관찰, 대조,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행동 묘사는 설명하지 못한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행위나 행동습관으로 완전히 설명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저의 행동이 외부의 경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제 생각에 큰 도약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당성이나 합리화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되었던 개념에서 한발짝 나아가보겠습니다. 즉, 단순한 행동적 사실보다 내부에서 생각하는 시스템이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면서 양심의 문제로 일관되게 호소합니다.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의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아마도 두가지 욕구를 느낄것입니다. 돕고자 하는 욕망 (본능 때문에) 다른 욕망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자기 보호 본능). 하지만 당신은 그 두가지 충동 이외에 당신의 내부에서 도망가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가지 본능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는 이 일 자체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양심을 묘사하는 한 방법이거나 때로는 인간의 "성격" 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제가 인간의 가장 심오한 행동을 발견한 곳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 없이 다른이에게 고의적으로 큰 친절을 베풀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때로는 인간은 그것을 의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서둘러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가던길을 멈추고 완전한 이방인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이들이 회복하고 더 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기를 기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귀로 듣고, 책에서 읽거나 영화나 스크린에서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에게 특별하게도,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일어난 한 사건에 개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대학 시절 동료였고 저와 함께 나중에 국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밥 카터 1976년 11월, 밥 카터는 조지아주 북서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4학년이였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5월달에 학교 첫 교육자 졸업반으로 막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족과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집에 살면서 현지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댐 붕괴 11월 6일 오전 1시 30분경에 저희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문 밖을 봤을때 저희 집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캠퍼스 위의 호수에 있는 댐이 터졌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본 것을 설명한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다니던 서른 아홉명이 그날밤 죽었습니다. 저희는 집이 좁은 골짜기에서 20~30 피트 떨어진 벽의 가장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남자 기숙사 중 하나가 1층이 예고 없이 즉시 잠겨버리기도 했습니다. 밥 카터는 그의 방에 있었고 그와 룸메이트는 방에서 나와 물에 잠겨있는 복도를 지나 건물을 빠져나오고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에 머물러 있지 않고 3명의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물에 잠긴 건물로 3번이나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그가 걱정이 되서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말리려 했습니다. 그날밤 많은 생명이 죽었고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다른이를 구원한 인간 행동은 대부분 밥 카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후 1984년, 말레이시아에 페낭에 있는 달랏 국제학교의 선생님과 교장으로 이하면서 휴가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밥 카터가 있는 플로리다로 가서 학교에 대신해서 인터뷰를 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학교의 교사진과 함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데이тона 비치에서 자신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 한 산업 예술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디자인하는 밥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글 안에서 1986년 10월, 말레이시아의 비오는 계절, 밥 카터는 정글에서 하이킹을 하는 학생들을 자연의 강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숙사 직원과 함께 감독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킹은 성공적이었고, 학생들은 황야지대 위로 하는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 당시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라 수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감독관이 올때까지 강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감독관은 또한 30 피트 아래에 10미터 폭포가 있음을 알았고, 만약 학생들이 강에 너무 일찍 들어갈 경우 폭포에 너무 가깝게 들어갈 수 있어 끔찍한 일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강에서 안타깝게도, 두명의 9학년 학생들은 그들의 열정이 앞서 그들의 그룹을 뒤로한채 먼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밥 카터와 다른 감독관 버질 아담스는

소녀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는 즉시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녀들은 강을 보았고 그것이 수영장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길을 벗어났습니다. 앞에 있던 소녀가 강 가까이 있을 때, 그녀는 젖은 바위 위로 미끄러져 강으로 빠졌습니다. 다른 소녀는 멈췄죠. 버질 아담스는 자신이 들어가면 자신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밥 카터는 멈추지 않았죠. 그는 물에 뛰어들어 빠르게 폭포쪽으로 떠다니는 소녀를 붙잡고 옆으로 데리고 가서 바위 위에 마른 자리를 잡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손을 얹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소녀의 허리를 감싸는것으로만 몸을 고정시킬 수 있었고, 그는 그녀의 몸의 무게가 강쪽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질 아담스를 보았고 미소지으면서 그 소녀를 놓아주었고 그녀는 바로 바위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밥 카터는 강 밑으로 빠졌고 그는 버질을 한번 더 본 뒤 사라졌습니다. 몇시간 후 폭포 밑 수영장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사랑 저는 밥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은 인생에서 몇번 없습니다. 말할때 마다 어제 일어난 일처럼 재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를 이야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나 생명을 고의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 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 주변 알다시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문제를 매일 직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번 그러한 영웅적인 행동이 드러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인간이 영웅적이며 다른 인간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 위치, 특권, 평판등을 희생하고나 공유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인간은 그저 사람을 돕기 위한 욕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욕망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떨때는 자급 자족, 칭찬이나 특권을 위해 행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주위에 매일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셀수 없는 이타적인 행동들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실질적인 피드백이나 보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웅적인 행동들 저는 K-12 캠퍼스에서 정기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울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인다면 연민을 표하거나 도와주려 합니다. 저는 배움에 있어서, 또는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는 특정 언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학생과 교사진들이 다른이들을 돕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 APAC Basketball 때 두명의 게스트가 저에게 우리는 놀라운 커뮤니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3일동안 이 캠퍼스의 학생들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학생들 보다 어디에서나 친절하고, 밝고,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는 이렇듯 영웅적인걸까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있다 저는 저는 다른 동물들은 어떤 형태의 자기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이타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매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삶이 방식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의 일부가 되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된다는것의 한가지 확실한 특징입니다. 가끔씩은 인류의 안좋은 점만 보이고 들리고, 어둡고 어려운 세상에서 인간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